

## 조선 후기 明 遺民에 대한 기록 양상

— 九義士를 중심으로 —

사 경 화\*

<目次>

- I. 머리말
- II. 明 遺民과 九義士
- III. 九義士에 대한 기록과 작가의식
- IV. 결론

<국문 초록>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나라에 인질로 끌려간 봉림대군은 역시 청나라의 포로로 끌려온 9명의 명나라 선비들과 심양에서 만나게 된다. 그는 이들 선비들이 품은 反淸復明 의지에 깊이 공감하고 이후 함께 조선으로 들어온다. 이 9명의 명나라 선비들을 ‘九義士’라고 부른다.

九義士들은 봉림대군의 보살핌 아래 조선에 정착하였고 봉림대군이 즉위한 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하면서 북벌을 준비한다. 하지만 즉위 10년 만에 효종이 승하하면서 북벌론은 그 결실을 맺지 못하고 실체를 상실하게 된다. 이로 인해 九義士의 존재 또한 묻히게 된다.

한편, 숙종, 영조, 정조대를 거치며 北伐論의 자리를 尊周論이 대신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명나라 역사와 인물들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게 된다. 명나라의 역사서를 조선의 손으로 편찬하는가 하면, 명나라 인물들에 대한 다양

\* 성신여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sanomi@daum.net](mailto:sanomi@daum.net)

한 기록 작업들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九義士의 존재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고, 여러 문인들의 손에 의해 작품으로 탄생한다.

가장 먼저 李德懋의 『磊磊落落書』에서 이들의 존재가 다시 세상에 드러난다. 그리고 연이어 成海應의 『皇明遺民傳』, 『八姓傳』, 국가차원에서 편찬된 『尊周彙編』에서도 九義士에 대한 기록이 보인다. 이들 기록들은 조선이 중화 문명을 계승했음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들로서 九義士들에 대한 내용 또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九義士의 후손인 王德九는 『皇朝遺民錄』을 통해 조상에 대한 구체적 기록을 남겨 이를 통해 조선사회에서 九義士가 가지는 의미를 밝히고 하였다. 그리고 화서학파의 대표적 학자인 金平默은 위정척사의 입장에서 이들에 대한 傳을 지어 대명의리론을 강조하고 九義士들의 삶을 통해 당시 흔들리던 조선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주제어】 丙子胡亂, 明 遺民, 九義士, 王德九, 金平默, 皇朝遺民錄, 九義士傳

## I. 머리말

임진왜란의 상처가 치유되기도 전에 발생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은 조선에 치명상을 안겨주었다. 특히 병자호란의 패배로 조선은 물리적인 상처 뿐만 아니라 오랑캐라 여겨오던 여진족에게 三拜九敲頭禮라는 치욕스런 항복을 하며 정신적인 충격까지 겪게 되었다. 또한 昭顯世子和 鳳林大君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인질이 되어 심양으로 끌려간다.

한편, 1616년 누르하치가 후금을 건국한 이후 명나라는 끊임없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1636년 청의 건국과 함께 점점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나라 군대, 혹은 李自成 등의 반란군을 상대로 끝까지 저항하다가 사로잡혀 심양으로 압송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심양에서 만난 鳳林大君과 反淸復明을 약속하고 의기투합하여 함께 조선으로 들어온다. 그들이 바로 후에 九義士라 칭해지는 사람들

이다.

이들은 조선으로 들어 온 후 봉림대군의 보살핌 아래 궁궐 근처에 정착하였고, 봉림대군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였다. 이후 봉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하자 北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즉위 10년 만에 효종이 승하하면서 北伐論은 그 실체를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서 九義士의 존재 또한 묻히게 된다.

이들의 존재가 세상에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正祖 代 명나라 유민에 대한 기록들이 하나 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李德懋에 의해 「磊磊落落書」가 편찬된 이후 이를 바탕으로 成海應의 「皇明遺民傳」, 「八姓傳」 등이 편찬되고, 국가차원에서 『尊周彙編』이 편찬된다. 또한 九義士의 후손인 王德九에 의해 『皇朝遺民錄』이, 조선 말 儒林의 거장이었던 金平默에 의해 「九義士傳」 등이 편찬되었다. 본고에서는 九義士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작가의 의도를 찾아보고자 한다.

## II. 명나라 遺民과 九義士

17세기 중반 270여년 동안 동아시아의 주인이었던 명나라는 결국 세력을 뺏치던 淸에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 혼란스러운 명·청 교체기를 피해 많은 수의 명나라 유민들이 조선으로 유입되는데, 이들의 성격은 조선에 들어온 시기를 기준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전란이 한창일 당시 난을 피할 목적으로 조선에 들어온 사람들이다. 이들은 청나라를 피해 조선의 변경 지역으로 몰려들었는데, 당시 실록에 “이때 적들이 이미 遼陽을 점령하고 東八站을 위협하자, 오랑캐에게 복종하기를 달가워하지 않는 많은 군사와 백성들이 변경을 넘어

왔으므로 왕 참장이 목숨을 보전시켜서 서로 의탁하게 하였다. 그 후에 적이 크게 이르자 머리를 깎지 않으려는 의로운 백성들이 모두 압록강에 몸을 던져 죽었다.”<sup>1)</sup>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지 않은 수의 遺民이 조선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병자호란이 끝나자 청나라는 이들의 송환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이들의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원, 경기, 황해, 평안도 등에 머물던 명나라 사람들을 색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명나라 유민의 정착 과정은 청나라와의 마찰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방법으로 비밀스럽게 처리되었고, 그 결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sup>2)</sup>

다음으로 1644년(인조22)에 청이 북경을 완전히 점령한 후 조선으로 들어온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명나라 조정에서 관직 생활을 했거나, 임진왜란 당시 조선에 파병되었던 明軍의 후손들로서 田好謙, 康世爵, 李如松의 후손인 李應人 등이 대표적이다.<sup>3)</sup>

마지막으로, 1645년(인조2)년 봉림대군이 조선으로 돌아올 때 함께 들어온 명나라 사대부들이다. 이들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할 당시 의병활동을 하거나 李自成的 반란에 대항 하는 등 적극적인 反清 활동을 하다가 포로가 되어 심양으로 압송된 자들로, 모두 9명이다. 당시 심양에는 병자호란 후 청나라의 인질이 된 鳳林大君이 머물고 있었다. 이들은 봉림대군이 뜻을 품고서 은밀히 인재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 反清復明의 의지를 다진다. 이후 鳳林大君은 조선으로 귀환하면서 이들과 동행한다.<sup>4)</sup> 즉, 이들이 조선으로 들어온 이유는 피난이나 청나라

1) 『光海君日記』 권165, 光海 13年 5月 12日, “時, 賊旣得遼陽, 逼東八站, 軍民之不樂從胡者, 多至越邊, 故王參將以保全相托. 其後賊大至, 義之不肯剃頭者, 皆投鴨水以死.”

2) 우경섭, 「조선 후기 귀화 漢인과 황조유민의식」, 『한국학연구』 27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pp.337-338; 최승현, 「한국의 明代遺民 연구」, 『중국인문과학』 47집, 중국인문학회, 2011, pp.356-340.

3) 이들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우경섭, 2012, pp.340-342 참고.

의 박해를 피하고자 하는 목적 보다는 反淸復明을 목표로 한 정치적 망명의 형태를 띤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후에 이들의 행적으로 기리는 의미로 九義士라 지칭하게 된다.

<효종을 따라 조선으로 들어온 九義士>

성명	생몰년	字	출신	행적
王美承	1602 ~ 1659	繼伯	산동성 동창	이자성의 난이 일어나자 의병을 모집해 활동하였으며 포로로 잡혀 심양으로 압송. 봉림대군을 따라 조선으로 들어와 북벌에 대해 함께 논의. 효종이 승하하자 곡기를 끊었고 등창에 걸렸으나 치료를 거부하다가 58세를 일기로 사망.
馮三仕	1607 ~ 1672	惟榮	청주부 임구현	1638년 청의 병사들이 산동성에 침입하자 의병을 모집해 德州를 지켜냄. 이후 의병활동 중 포로로 사로잡혀 심양으로 압송. 봉림대군과 조선으로 들어왔으며, 효종이 승하하자 두문불출하다가 사망.
黃功	1612 ~ 1677	聖報	항주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崇禎帝 때 무과에 급제하여 中都留守에 오름. 봉림대군을 만나 조선으로 들어왔으며, 가선대부에 올랐으나 사양함. 임인관 등이 조선으로 표류해 왔을 때 이들을 청나라로 돌려보내기 위해 특사로 파견되는 등 조선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침.
鄭先甲	1617 ~ 1686	始仁	낭야	봉림대군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왔으며, 현종대에 한학우어청에서 중국어를 교수. 문가상 등 같은 처지의 유민들과 교유한 기록이 남아있음.
裴三生	1621 ~ 1684	之重	대동	의병활동을 하다가 사로잡혀 심양으로 압송, 효종을 따라 조선으로 들어왔으며 북벌을 이루지 못하고 사망. 裴三生の 또 다른 기록에 따르면 아버지 산대가 심양에 포로

4) 『仁祖實錄』 권46, 仁祖 23年 1月 26日; 5月 14日.

				로 잡혀 있다가 봉림대군과 함께 조선으로 오는 길에 사망하였으며, 당시 세 살이던 삼생은 명나라 궁인이었던 최희저의 손에 의해 길러졌다고 함.
王文祥	1622 ~ 1688	汝章	청주	봉림대군과 함께 조선에 들어왔으나 북벌이 실현되지 못한 후 병사.
王以文	1625 ~ 1699	岐陽	제남	본명은 봉강인데, 효종이 증자의 ‘以文會友’를 가져다가 ‘이문’으로 바꿔줌. 아내인 황부인과 함께 포로로 잡혀 심양으로 압송되었고, 봉림대군과 비슷한 시기에 아들을 낳음. 이후 조선으로 들어와 효종과 북벌을 논의하였으나 그 뜻을 실현하지 못함. 훈련도감에서 내리는 양식을 받지 않았으며, 후에 동부승지로 추증.
柳溪山	1627 ~ 1658	許弄	대동	명나라가 무너지자 미친 척을 하고 돌아다니다 의심을 받아 심양으로 압송. 김자점 때문에 북벌에 대한 논의가 잠시 중단되자 이에 좌절하여 물러나와 은둔하다가 병사.
楊福吉	1617 ~ 1675	祥甫	통주	봉림대군과 함께 조선에 들어왔으나 북벌이 실현되지 못한 후 병사.

조선에 들어온 이들을 위해 봉림대군은 於義洞 본궁 옆 朝陽樓의 남쪽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고, 생계를 위해 內需司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급여를 받게 해 주었다. 그리고 효종으로 즉위한 후에는 자주 교류 하면서 북벌에 대해 논의하곤 하였다.<sup>5)</sup> 하지만 효종이 즉위한 지 10년 만에 승하하면서 결국 북벌론은 무위로 돌아가고, 여기에 청나라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재편되면서 북벌론은 실체를 상실하게 된다. 그 결과 九義士들의 존재는 자연스레 흐릿해졌으며, 그들도

5) 王德九, 『皇朝遺民錄』, “宣文王自在瀋, 氣義相感, 及其還與之來, 館于宮門外, 而厚遇之, 無日不講復讐之事.”; 金平默, 『重菴集』 권52, 「九義士傳」, “憲文王爲築九人之室於鳳林之宮南墻之外. 內需司厚給衣糧.”; 宋秉璿, 『淵齋集』 권48, 「皇朝遺民傳」, “隨我孝廟還國, 築室于朝陽樓南, 人號其居曰皇朝人邸也.”

反淸復明이라는 정치적 목표가 사라진 후 두문불출 하다가 생을 마쳤다.

조선 건국 이후 수백 년 동안 섬겼던 명나라의 후예였지만 조선에서 이들의 처지는 그리 녹록지 않았다. 이는 九義士들이 명나라 사대부로서 절의를 지키고자 조선에서의 出仕를 마다하였고,<sup>6)</sup> 조선인으로 同化되기 보다는 명나라 후예임을 잊지 않고자 노력을 기울인 결과였다. 하지만 끝까지 ‘명나라 사람’이고자 했던 이들의 선택으로 인해 ‘명나라의 계승자로 자부하던 조선의 사대부들과의 간극이 발생했고, 이는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조선에 들어왔을 당시 효종은 이들을 훈련도감에 소속시켜 생계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효종 사후 이러한 처우가 점점 변질되기에 이른다.

과거 崇禎 갑신년 청나라에 인질로 잡혀 있던 孝宗이 돌아올 적에 漢人 8명이 따라왔는데, 그들 모두에게 於義洞 본궁 옆에 거처를 하사하였다. 그 무리 중에 고기잡이를 잘하는 자가 있어서 항상 그물로 고기를 잡아 임금에게 올려 정성을 바치곤 했다. 나중에 漢人牙兵이란 이름으로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고기잡이로 노역 당했는데 그 고초를 감내할 수 없었고, 진법을 훈련할 때면 배척하여 왜군 초병 역할을 맡게 하니 천대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너무 심하였다.<sup>7)</sup>

漢人으로서 우리 나라에 陪歸한 사람들을 세자 시절의 효종께서 궁궐 부근에 살 수 있게 하라고 명하였고, 寶位에 오른 뒤에는 內需司에 소속시켜 식구의 수를 따지어 양식을 주었다. 이어 또 訓局의 牙兵色에 편입시켜 고기잡이로 생계를 꾸려나가게 하였으니, 이것이 한인 아병을 설치하게 된 전말이다. (중략) 그러던 것이 요즘에 이르러서는 設施한 지 이미 오래되고 풍습 또한 예전 같지 아니하여 그들 스스로 감내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그들을 업신여기는 것이 그야

6) 成海應, 『研經齋全集』 권43, 「皇明遺民傳[七]」, “孝宗居之朝陽樓下, 欲官之, 鳳岡辭曰天若祚明, 克復區夏, 臣歸死足矣. 孝宗亦不強.”

7) 成大中, 『青城雜記』 권5, 「醒言」, “始崇禎甲申, 孝廟東返, 從之來者有八人, 並賜居於義洞本宮之側. 其徒有善漁者, 常網魚斯上, 以致芹曝之誠. 後屬訓局, 名曰漢人牙兵. 役以漁丁, 不堪其苦, 習陳則斥爲倭哨, 卑末之已甚. 今上命別爲漢旅軍官, 毋屬訓局, 始免漁丁之役.”

말로 극도에 이르렀다고 할 만하다. 심지어는 武術을 闕視하는 教場에서 그들을 임시 왜군 초병으로 삼기도 하고 있다. 그들은 중국 사대부들의 후예인데, 이처럼 지극히 천하고 비루한 노릇을 하고 있다하니, 이 말을 들음에 너무도 유감스럽고 애석하다.<sup>8)</sup>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鄭先甲과 黃功의 경우 실록과 개인의 문집을 통해 조선 조정에서 일정 역할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鄭先甲은 文可尙과 함께 漢學偶語廳에서 조선 역관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쳤으며, 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받았다.<sup>9)</sup> 黃功의 경우 당시 조정 대신이었던 윤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윤휴는 황공이 대만의 정금의 사신으로 가고자 할 때 이를 지지하였으며, 黃功을 加資할 때에도 嘉善의 품계를 내리도록 아뢰기까지 하였다.<sup>10)</sup> 그리고 黃功은 자진하여 조선 무사들에게 十八般武藝를 가르치고자 하였고, 염초를 굵는 방법을 전수하겠다고 자원하여 실제로 충청도와 함경도에 파견되기까지 했다. 하지만 당시 대신들의 반대로 뜻을 펴지 못하였다.<sup>11)</sup> 또 1667년에 임인관 등 명나라 사람들이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에는 특별히 파견되어 그들을 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설득하는 역할을 수행<sup>12)</sup> 하는 등 九義

8) 『正祖實錄』, 正祖 14年 3月 19日, "漢人之陪歸東土者, 孝廟朝命使之寄接於宮底, 及登寶位, 屬之內需司, 計口給糧. 旋又編管訓局牙兵色, 漁業資生, 此漢人牙兵設置之顛末也. (중략) 以至近日設施已久, 而風習不如古, 渠所自甘, 人之侮之, 可謂無餘地. 甚至闕武教場, 或作假倭哨. 渠輩以中朝薦紳士夫之遺裔, 爲此至賤極鄙之役, 聞此豈勝歎惜?"

9) 『肅宗實錄』 권16, 肅宗 3年 3月 22日; 『英祖實錄』 권25, 英祖 6年 11月 25日.

10) 尹鐳, 『白湖全書』, 附錄5, 「年譜」, "有黃功者, 中朝應天府人也, 弘光之破, 爲虜所獲. 孝廟之入質北京也, 功亦在燕, 知上有大志, 因從東來. 及孝廟陞陸, 陸功堂上, 眷待優厚. 至是, 聞中原擾亂, 乃上疏, 陳說圖讖, 請早舉義旗, 已得效力行間, 上奇其志. 先生請加褒賞, 上亟從之, 卽加嘉善階."

11) 『肅宗實錄』 권3, 肅宗 1年 4月 1日; 金平默, 『重菴集』 권52, 「九義士傳」, "鳳林卽位, 無時召接, 密議大事, 除禮曹參議, 陞嘉善大夫, 皆不受. 使監咸鏡原襄兩道鹽硝, 公曰, 此則非官銜, 敢不受命. 東國做硝, 其良法, 自此始矣."

士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나머지 九義士들의 경우에는 북벌이 좌절된 후 특별한 행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후손들도 조선 사회의 일원이 되는 데 많은 시간과 어려움이 존재했다. 여기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청나라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조선은 명나라 유민을 관리하는데 청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顯宗 8년(1667)에 임인관 등 명나라 사람 95명이 제주도에 표류했을 때 이들을 청나라로 압송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상황에서 九義士를 비롯한 명나라의 후예들을 드러내놓고 대우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이들은 자연스럽게 권력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었으며, 이들의 후손들도 중인의 신분으로 정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 Ⅲ. 九義士에 대한 기록과 작가 의식

反淸復明을 목표로 조선에 들어온 九義士들은 정치적 동지였던 효종의 죽음과 동시에 그 역할을 잃었다. 그리고 효종 사후 유명무실해진 北伐論의 자리를 대신하여 尊周論이 강화되는 시기와 맞물려 그 존재가 다시 드러나게 된다. 尊周論은 숙종 대 大報壇의 창설로부터 본격화 되어 영조에 이르러 강화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명나라 유민에 대한 다양한 우대 정책이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리고 정조 대에 이르러 명나라 유민에 대한 정책들이 구체적인 결실을 맺게 되었으며, 명나라 유민들

12) 『顯宗實錄』 권13, 顯宗 8年 6月21日; 성해응, 『研經齋全集外集』 권34, 「尊攘類 丁未傳信錄」

13) 『顯宗實錄』 권14, 顯宗 8年 6月 21日; 『顯宗改修實錄』 권18, 顯宗 8年 10月 3日.

14) 成海應, 『研經齋全集續集』 책15, 「八姓傳」, “是故, 八姓者, 皆在委巷, 或深藏峽野, 或浪跡江湖.”

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이 과정에서 九義士에 대한 다양한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이는 시기와 작가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1. ‘중화문명의 계승자’라는 자부심의 표현: 「磊磊落落書」, 「皇明遺民傳」, 「八姓傳」, 『尊周彙編』<sup>15)</sup>

효종 사후 九義士의 존재가 다시 드러나게 된 것은 이덕무가 명나라 유민을 다룬 「磊磊落落書」<sup>16)</sup>를 저술하면서이다. 이덕무는 1778년(정조2) 3월, 陳奏使 沈念祖의 수행원으로 燕京에 가게 되는데, 이때 오랑캐가 되어버린 중국을 보고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미처 정리, 기록되지 못한 명나라 유민들을 기록할 필요성을 느낀 후 여러 자료를 수집해 들어와 遺民傳을 지었는데, 이것이 「磊磊落落書」이다.<sup>17)</sup>

그는 이를 저술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담기 보다는 가능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문헌 속의 기록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磊磊落落書」는 720여명의 유민들을 담은, 일종의 인명사전 같은 형태를 띤다.

「磊磊落落書」에는 九義士 가운데 王鳳岡, 黃功, 馮三仕, 鄭先甲, 裴三生에 대한 기록이 담겨있으며, 그 외 인물인 王美承, 楊福吉, 王文祥은 王鳳岡條에서 이름 정도를 간략히 언급하였다. <sup>18)</sup> 이덕무가 구의사에

15) 『尊周彙編』과 「磊磊落落書」, 「皇明遺民傳」의 경우 명나라 유민에 대한 포괄적 기록물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九義士만을 다룬 기록을 중심으로 논의를 펴 나가고자 한다.

16) 「磊磊落落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혜리,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 지식인들의 明 遺民에 대한 기록과 편찬의식」, 『韓國實學研究』 28, 한국실학학회, 2014, pp.331-334 참고.

17) 李德懋, 『雅亭遺稿』 권8, 「墓碣銘」, “嘗入燕見中州爲戎, 飲酒悲歌, 蒐購逸史秘乘, 歸著明季遺民傳, 命曰磊磊落落書.”

18) 李德懋, 『靑莊館全書』 권47, 「磊磊落落書補編」下, “王鳳崗, 一名以文, 濟南

대해 기록한 내용은 그들의 이름과 고향, 그리고 효종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왔다는 사실만을 언급한 정도이다. 따라서 그들이 조선에 들어온 목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이덕무의 『磊磊落落書』로 인하여 九義士의 존재가 다시금 세상에 드러났다는 점에서 의의는 크다고 할 것이다.

이후 『磊磊落落書』의 단점을 보완하여 편찬한 것이 성해옹의 『皇明遺民傳』<sup>19)</sup>이다. 그는 『磊磊落落書』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준에서 내용을 산삭하거나 보충하여 574명의 유민을 기록하였다. 성해옹은 『皇明遺民傳序』에서 “내가 일찍이 張廷玉의 『明史』를 읽었는데, 廷玉은 청나라의 신하로 끼리는 바가 있어 황조의 충성스럽고 의로운 선비들을 가리고 덮어 드러내지 않음이 많았다.”<sup>20)</sup> 라고 하였고, 또, “돌아보면 그 절개가 이처럼 우뚝한데도 사적이 쉽게 인멸되니 만약 황조의 역사를 엮는다면 나오는 것이 늦을 것이고, 만약 청인의 대열에 끼어 넣는다면 충의지사를 대접하는 바가 아니다. 한 부의 책으로 그 사람들을 나열하지 않는다면 충의의 자취를 덧붙일 바가 없게 되니, 이것이 내가 편집하는 뜻이다.”<sup>21)</sup>라고 하였다. 즉, 성해옹의 『皇明遺民傳』은 청나라에 의해 편찬된 『明史』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표하고, 명나라에 대한 절의를 지킨 사람들의 사적이 사라지는 것을 우려한 결과물이다.

성해옹은 『磊磊落落書』를 산삭하는 과정에서 九義士에 대한 기록은

---

人, 崇禎名臣楫之子. 我昭顯世子在瀋陽十年, 清人既克北京, 仍許之反. 鳳崗與庠生王文祥, 馮三仕, 王美承, 楊福吉, 鄭先甲, 大同人劉自成, 襄三生, 杭州人黃功等十三人, 從之來.” 『뇌뢰낙락서』와 『皇明遺民傳』에서는 柳溪山의 이름 대신 劉自成一로 기록되어 있다. 이후 『존주휘편』에 실릴 때에 柳溪山으로 고쳐 실린다.

19) 『皇明遺民傳』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손혜리, 2014, pp.334-339.

20) “余嘗讀張廷玉所著皇明史, 廷玉臣事清, 有所忌諱, 爲皇朝忠義之士, 多掩晦不章.”

21) “顧其節磊落如是, 而其事易歸於湮沒, 若編之皇朝之史則其生也後, 若齒之於清人之列則非所以待忠義也. 不有一部書以列其人, 則忠義之跡, 無所附焉, 此余編輯之意也.”

그대로 취하여 「皇明遺民傳」에 실었는데, 이 점에서 성해응이 九義士의 존재 가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은 『尊周彙編』에 그대로 전제되었다.<sup>22)</sup>

『尊周彙編』은 정조가 1796년(정조20) 3월 3일 皇壇에 제향을 마친 후, 3월 20일에 尊周의 의리를 담아 지은 역대 임금과 신하들의 글을 모아 편집하도록 명한 데 따라 편찬된 책이다. 정조는 당시 북학론이 힘을 얻는 상황에서 空言이 되어가던 존주론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결과물로 탄생한 것이 바로 『尊周彙編』이다.<sup>23)</sup> 당시 이 의준과 성대중이 편찬을 담당하고 이서구와 성해응이 실무를 맡았다. 따라서 『尊周彙編』이 「皇明遺民傳」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성해응이 九義士에 대해 관심이 지대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기록이 「八姓傳」이다. 성해응의 「八姓傳」에는 九義士를 비롯하여 文可尙, 麻舜裳, 李應仁의 傳도 함께 실려 있다. 그는 우선 柳溪山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傳을 쓰고, 柳溪山은 文可尙, 麻舜裳, 李應仁과 별도로 묶는 방식을 취하였다.<sup>24)</sup> 그리고 서문의 형식을 통해 「八姓傳」을 저술한 의도를 밝혔다.

나는 일찍이 「皇明遺民傳」을 지으면서 八姓의 일을 차례로 거론했었다. 八姓에 해당하는 사람은 庠生 王鳳岡, 楊福吉, 馮三仕, 王美承, 裴三生, 王文祥, 進士 鄭先甲, 守備 黃功이다. 당시 효묘께서는 봉림대군으로서 심양에 머무르고 있었다가 을유년에야 비로소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八姓이 효묘를 따라오니 조양

22) 다만, 王鳳岡의 기록 중 함께 조선으로 들어온 자들의 이름 가운데 劉自成이 柳溪山으로 수정되어 실렸다. 『尊周彙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옥자, 「正祖代 對明義理論의 整理作業-〈尊周彙編〉을 中心으로」, 『한국학보』 69집, 일지사, 1992 참고.

23) 정옥자, 『조선 후기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pp.216-219.

24) 『尊周彙編』에 柳溪山의 이름이 보이고, 王德九의 『皇朝遺民錄』을 이미 읽었다는 「八姓傳」 서문의 내용으로 볼 때, 柳溪山 또한 다른 유민들과 함께 효종을 따라 왔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를 팔성의 안에 포함시키지 않은 연유는 확실하지 않다.

루 곁에 머무르게 하고 옷과 먹을 것을 주었다. 보위에 오르게 되자 이들을 혼련도감에 소속시켰는데, 비록 향오의 임무는 없었으나 사대부들이 同流로서 서로 어울리려 하지 않음이 많았다. 八姓 또한 진실로 오랑캐들의 모욕을 피하고 오로지 생명을 보존하게 된 것만을 다행으로 여겨 다른 계책을 꾀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인이 우리나라 땅으로 흘러 들어와 귀하고 높은 자리에 오른 자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에 이르기 까지 그 수를 헤아려볼 수 있는데, 유독 황조의 유민들만은 배척을 당하였으니 진실로 이상하다. 이러한 이유로 八姓은 모두 위항계급에 머물러 혹 깊은 산골에 숨어살기도 하고 혹은 강호를 유랑하기도 하였다. 강호를 유랑하는 자들은 항상 고기를 잡아 왕에게 헌상하였는데, 그 시작은 왕에 대한 충성심일 따름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책임이 매우 심해졌다. 또 진법 훈련을 할 때 매번 倭哨 역할을 하니 천대받음이 심하였다. 정조대 이르러 조정에서 비로소 별도로 한려를 만들었고, 또 황단 수직관으로 차출하였으나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은 여전하였다. 王鳳岡의 후손인 王德九가 八姓의 일을 엮어 『皇朝遺民錄』을 지었는데 내가 기록한 것과 같지 않은 점이 많다. 그러나 모두 조각조각 잘려진 가운데에서 나온 것이니 득실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문득 이를 기록하여 후일의 질정을 기다린다.<sup>25)</sup>

성해응의 이 글을 통해 「皇明遺民傳」에서 볼 수 없었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이들이 봉림대군의 보살핌아래 조선에 정착하였으나 조선의 사대부들과 동화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여타의 유민들과는 달리 九義士들을 비롯한 명나라 유민들이 조선에서 홀대받은 사실, 그

25) 成海應, 『研經齋全集 續集』 책15, 「八姓傳」, “余嘗撰皇朝遺民傳, 歷舉八姓事. 八姓者, 庠生王鳳岡、楊福吉、馮三仕、王美承、裴三生、王文祥、進士鄭先甲、守備黃功也. 時孝廟在鳳林邸, 留藩陽, 乙酉, 始東返. 八姓從孝廟, 居之于朝陽樓側, 而衣食之. 及登寶位, 屬之訓練都監, 雖無行伍之役, 士大夫多不以輩流相齒. 八姓者, 亦苟免襁裘之陋, 唯以保性命爲幸, 不他較計. 然中國人流落東土, 鼎貴奕赫者, 在三國及高麗時, 可歷數也. 獨皇朝遺黎之見擯斥者, 誠可異也. 是故, 八姓者, 皆在委巷, 或深藏峽野, 或浪跡江湖. 其浪跡江湖者, 常網魚, 獻上供, 其始卽芹曝之誠耳, 久而責役甚苦. 又肄陣, 日斥爲倭哨, 卑之甚矣. 正宗朝始別之爲漢旅, 又差皇壇守直官, 然人之擯棄自如也. 王鳳岡之後孫德九, 編八姓事, 爲皇朝遺民錄, 多與余所記不同. 然俱出於斷爛之中, 未知失得何居, 輒錄之, 以俟他日之考据.”

리고 이러한 처우가 후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이러한 내용은 성해응의 아버지인 성대중의 글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데,<sup>26)</sup> 이런 점으로 미루어 성해응이 『八姓傳』을 저술한 데는 아버지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sup>27)</sup>

그리고 성해응의 『八姓傳』은 前作들에서 보이지 않았던 내용들도 기록하였는데, 이들이 중국에서 했던 反淸 활동과 조선으로 들어온 후 활동내용, 구의사들이 효종과 더불어 북벌에 대해 논의한 사실을 언급하였고, 그들의 沒年까지 기록하였다.<sup>28)</sup>

더불어 성해응은 왕이문의 후손인 王德九가 지은 『皇朝遺民錄』과 본인이 지은 九義士에 대한 기록에 다른 점이 많음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한다고 밝혔다. 『皇明遺民傳』을 저술한 시기는 1791~1800년 경으로 추정되고,<sup>29)</sup> 王德九가 『皇朝遺民錄』을 지은 것은 1818년(순조18)<sup>30)</sup>이다. 기

26) 成大中, 『青城雜記』 권3, 「醒言」, “孝廟在藩十年, 淸既克北京, 乃許之返, 山東人王鳳崗王文祥馮三仕柳許弄王美承, 大同人劉自成裴成三, 杭州人黃功等八人, 從之而來. 孝廟居之本宮側, 欲官之, 不肯, 願俟河淸而返, 孝廟亦不強, 而使衣食於官, 後屬之訓局, 今盡爲委巷人. 獨美承無後, 鳳崗, 崇禎名臣王楫之子, 其後最繁.(중략) 中國人流落東國, 而鼎貴突赫者, 三國尙矣. 高麗時, 宋商之奔投者, 元臣之陪公主而至者, 無不賜籍顯達, 子孫繁衍, 而獨明之遺民來東者, 箇箇屯蹇, 不齒士流, 何古今之不同也.”

27) 성해응은 「皇明遺民傳序」에서 “유독 동방의 士만이 항상 만력과 승정의 은혜를 생각하고 오히려 尊攘이 사모할 만한 것임을 안다. 나의 집은 또 대대로 이 뜻을 지켰다. 그러므로 기쁘게 유민을 위하여 전을 지으니 황하가 맑아지는 날 천하에 드러나기를 기다릴 것이다. 우리 집안의 의리는 이것으로 인멸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로 보아 성해응이 명나라 유민에 대한 기록을 남긴 데에는 아버지를 비롯하여 가문의 영향이 있었으리라 예상된다.

28) 楊福吉, 字祥甫, 其先蜀人, 後徙通州. 崇禎初, 游學京師, 與韓承宣友善, 承宣守歷城, 福吉從而客焉. 戊寅秋, 淸人入寇山東, 陷歷城, 承宣死之, 福吉被創幾殊, 虜執詣瀋陽. 乙酉, 東來, 孝廟嘗召見禁中, 議北伐之策, 未幾, 王薨. 福吉憂鬱成疾, 以肅宗乙卯, 歿于朝陽樓側, 年五十九. 「八姓傳」

29) 皇明遺民傳의 저술 시기는 손혜리, 2014, pp.351-352 참조.

30) 王德九, 『皇朝遺民錄』, 「皇朝遺民錄序」, “於是收拾諸家家乘, 謹校成編, 而圖

본적으로 명나라 유민의 후손인 왕덕구가 바라본 九義士와 명나라를 계승했다고 자부한 조선인 성해응이 바라보는 九義士는 다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성해응은 「皇明遺民傳」을 지은 뒤에 王德九의 『皇朝遺民錄』을 읽고 본인의 기록과 차이를 발견, 質正을 바라는 마음에서 별도로 「八姓傳」을 저술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덕무의 「磊磊落落書」와 성해응의 「皇明遺民傳」, 「八姓傳」 그리고 국가에 의해 주도된 『尊周彙編』의 편찬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존주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선에서는 1704년(숙종30) 명 멸망 1주년을 전후하여 임진왜란 당시 원군을 파견해준 명나라 신종과 마지막 황제 의종의 제사를 위해 만동묘와 대보단을 설립한다.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조선에서 지낸다는 사실은 조선이 명나라를 이어 중화문명을 계승했다는 것을 천명하는 것이었다.<sup>31)</sup> 그리고 영조 대에 이르러서는 존주대의가 한층 강조되면서 그동안 천대받던 유민들에 대한 다양한 우대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이전 시기 중국인을 뜻하던 ‘皇朝人’이 ‘명나라 유민’이란 의미를 가지게 된 것도 이때부터였으며, 1764년(영조40)에는 忠良科를 설치하여 병자호란 당시 절의를 지킨 충신들과 황조인의 후손들을 대우하였다. 그리고 황단망배례의 행사에 황조인의 후손을 참여하도록 하였으며 이들에게 황단의 수직 임무를 맡기는 데에까지 이르렀다.<sup>32)</sup>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정조대에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특히 당시 漢人牙兵으로서 고통 받고 있던 九義士의 후손들을 漢旅로 재정비하고 이들을 위한 「漢旅新設節目」을 마련하게 된다.<sup>33)</sup>

---

久遠名之, 曰皇朝遺民錄, 序其意如此崙. 永曆三戊寅春三月上旬, 山東濟南後人王德九敬書.”

31) 정옥자, 앞의 책, pp.96-99.

32) 노혜경, 「英祖代 皇朝人에 대한 인식」, 『동양고전연구』 37집, 동양고전학회, 2009, pp.131-145.

33) 『正祖實錄』 권29, 正祖 14年 3月 19日, “御丹楓亭, 召見皇朝人子孫, 改漢人牙兵爲漢旅(중략) 至於別般收用之道, 在於人與才, 而外此不堪於校列, 窮無資生者, 如訓局馬步軍中稍潔岐, 從願許屬, 亦不害爲兩便. 令兵判就議廟堂, 成

존주론이 이처럼 조선 내부에 자리잡게 되는 과정 속에서 명나라 유민들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명나라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조선인의 손으로 남긴다는 것은 명나라 황제의 제사를 조선에서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이 명나라의 뒤를 계승했다는 또 다른 자부심의 표현이었다.

## 2. 혈통으로 이어지는 중화세계의 표현: 『皇朝遺民錄』

명나라 사람들과 유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에 이들 후손에 의한 기록이 등장하는 것은 필연이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王德九가 지은 『皇朝遺民錄』이다.

王德九는 王以文의 5대손으로 1788년에 태어났다. 그의 선조인 王以文은 효종으로부터 ‘鳳岡’ 대신에 ‘以文’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을 정도로 효종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한 인물이다.<sup>34)</sup> 또한 ‘나라의 원수를 갚기 전에는 관직에 오를 수 없다’고 사양하면서 죽을 때까지 명나라 사람으로 살았던 인물이었다.<sup>35)</sup>

王德九는 평소 王以文을 비롯하여 조선에 들어온 명나라 유민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명나라와 관련된 다양한 저술을 남기는데 노력을 기울였다.<sup>36)</sup> 그리고 『尊周彙編』의 편찬 작업에 참여하고 있던 李晔九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尊周大義를 높이 찬양하면서 이를 더욱 고무시키기 위해 자신이 지은 『洌泉直中錄』·『皇朝遺民錄』·『壬辰溟海錄』·『萬曆三科』 등의 책을 보내기도 하였다.<sup>37)</sup>

出事目, 分付訓局.”; “兵曹進漢旅新設節目.”

34) 金平默, 『重菴集』 권52, 「九義士傳」, “字岐陽, 宣文王取曾子以文會友之語, 改名曰以文.”

35) 王德九, 『皇朝遺民錄』, “對曰: 羈旅之臣, 敢寵榮而忘國讐哉! 天若祚明克復, 中夏歸死足矣. 言未已泣下感慨如無所歸. 王嘉其志, 不强仕之.”

36) 우경섭, 「조선후기 大明遺民의 罔僕之義」, 『한국학연구』 36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5, pp.191-192.

그가 남긴 『皇朝遺民錄』은 序文과 9명의 전기, 그리고 黃基天이 지은 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王德九가 『皇朝遺民錄』을 편찬한 것은 선조의 역사를 기록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었지만, 다음을 통해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오대조 庠生公, 楊庠生, 馮庠生, 王庠生, 裴庠生, 王庠生, 鄭進士, 黃留守, 柳庠生 등 여러 공은 포로로 잡혀있을 때에도 그 마음에서 일찍이 단 하루도 명 황실을 잊은 적이 없었다. 선문왕이 심양에 있을 때 의기에 서로 감동하여 환국할 때에 함께 돌아와 궁 밖에 집을 내려 주고 그들을 후하게 대우하며 하루라도 복수의 일을 이야기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 왕이 승하하여 큰 뜻을 끝내 펼치지 못했으니 이것이 하늘의 뜻이란 말인가!

여러 공들이 마침내 천고의 한을 품었으니, 어찌 다만 諸公의 한이겠는가. 천하 만세의 한일 것이다. 지금 백년 후 어질고 의로운 선비 누구인들 가슴을 어루만지며 諸公의 의지를 칭송하지 않겠는가. 비록 當世에 행하지 못했으나 潔身의 절의는 후세에 드리워질 만한데도 남겨진 일이 사라져서 세상에서 아는 자가 거의 없으니 후에 사라질까 두렵도다. 이에 여러 집안의 家乘들을 수습하여 교정하고 책을 만들어 영원토록 이름이 전해지기를 기도하며 이름하기를 『皇朝遺民錄』이라 하고 그 뜻을 이와 같이 쓴다. 영력 3년 무인 봄 삼월 상순에 산동 제남 후인 王德九가 삼가 쓴다.<sup>38)</sup>

王德九가 『皇朝遺民錄』을 편찬한 일차적 목적은 명나라에 대한 절개를 죽을 때까지 지킨 선조들에 대한 구체적 기록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37) 王德九, 『滄海集』 권1, 「上薑山李相公」.

38) 王德九, 『皇朝遺民錄』, 「皇朝遺民錄序」, “我五代祖庠生公, 與楊庠生、馮庠生、王庠生、裴庠生、王庠生、鄭進士、黃留守、柳庠生諸公, 在拘繫之中, 其心未嘗一日忘明室也. 宣文王自在瀋, 氣義相感, 及其還與之來, 館于宮門外, 而厚遇之, 無日不講復讐之事. 嗚呼! 王薨大義竟不得伸, 是豈天耶! 諸公遂齎千古之恨, 豈獨諸公之恨, 乃天下萬世之恨也. 今百載之下, 仁人志士, 孰不撫膺. 長吁諸公, 秉義\*志, 雖未行於當世, 潔身之節, 可以垂後, 而遺事漏失於滄桑之餘, 世之知者, 幾希矣, 恐後湮沒. 於是收拾諸家家乘, 謹校成編, 而圖久遠名之, 曰皇朝遺民錄, 序其意如此. 永曆三戊寅春三月上旬, 山東濟南後人王德九敬書.”

당시 九義士를 다룬 기록은 앞서 언급한 「磊磊落落書」, 「皇明遺民傳」, 『尊周彙編』 등이 있었다. 하지만 이들 기록은 九義士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다뤘다고 보다는 ‘이들이 명나라 유민으로, 효종과 함께 조선에 들어왔다’는 사실관계를 밝히는데 그친 한계가 있었다. 특히 九義士들이 청나라에 맞서 끝까지 싸운 절의의 상징이라는 사실과 이들이 反淸復明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조선에 들어왔다는 점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九義士의 이름이 제대로 드러나지 못하였다. 왕덕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皇朝遺民錄』의 서문에서부터 九義士들이 조선에 들어온 목적을 확실히 밝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九義士들과 그의 후손들이 조선에 들어와 겪었던 어려움에 대해서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성해응의 「八姓傳」이나 뒤에 서술할 金平默의 「九義士傳」에서는 九義士들이 조선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음을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비교된다. 이는 조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선의 처우를 언급하고 선조의 안타까운 삶을 기록하기 보다는, 철저히 선조에 대한 자부심만을 내보이고 싶은 바람의 결과였을 것이다.

왕덕구가 九義士를 기록하면서 의도한 바는 명나라 사람인 九義士의 존재로 말미암아 조선이 중화문명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즉, 이전의 기록들이 명나라 역사와 인물들을 기록하는 행위를 통해 조선이 명나라를 계승한 나라임을 내보였던 것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위해 王德九는 九義士의 행적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는 각 집안의 기록을 취합하여 청나라와의 항쟁과정, 反淸復明의 의지를 가지고 조선으로 입국한 사실, 복벌을 위한 노력, 이후 생애 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다음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① 양상생의 이름은 복길ियो, 자는 상보이다. 그 선조는 촉나라 사람으로 후에 통주로 옮겼다. 상생은 어려서 외롭고 가난하였으나 탁월하고 기질을 좋아

하였다. 승정 초에 경사로 유학하여 지현 황승선과 사이 좋게 지냈다. 당시 지현은 歷城을 지키고 있었기에 상생은 그곳의 객이 되었다. 무인년 가을, 청나라 오랑캐가 관산 동주현으로 쳐들어오자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도망쳐 흩어졌다. 지현이 상생에게 말하길 “오랑캐의 기병이 도달할 것이니 장차 안전하게 빠져 나갈 방법이 있겠는가?” 상생이 답하기를, “병사들은 평소 훈련을 하지 않았고, 또 굶주리고 있으니, 난리를 맞아 목숨을 바치는 일을 그 누가 따르겠는가? 나도 곧 죽음만이 있을 따름이네.”하였다. 얼마 후 적병이 성에 다다르자 상생과 지현이 성문에 서서 민병을 불렀으나 모두 숨어 버리고 한명도 응하지 않았다. 상생이 탄식하기를 “인심이 이 지경에 이르렀구나.” 하고 마침내 所部와 將吏를 거느리고 굳게 지키고자 하였으나 하루도 되지 않아 성은 함락되고 지현은 사망하였으며 상생 또한 창상을 입고 기절하였다. 다음 날 다시 깨어나니 적이 상생이 살아난 것을 알고 잡아 무릎을 꿇게 하였으나 상생이 꾸짖으며 소리치기를, “죽으면 죽었지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 라고 하였다. 적이 노하여 심양으로 압송하였다.

② 당시 선문왕이 대군으로서 심양에 있었는데, 만나보고 관하가 되기를 구하여 풍상생 등 여러 공과 함께 따라 조선으로 왔다. 왕은 궁문 밖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 자주 불러 만나보았다. 왕이 일찍이 탄식하며 말하기를, “과인의 北征의 뜻을 하루라도 잊었겠는가. 하지만 군사는 적고 힘은 약하니 이를 어찌 할 것인가를 공들의 계획을 듣고 싶소.”하였다. 상생이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신이 듣자오니 國君은 人神의 주인이요, 마음은 만사의 근본이라 하였습니다. 천하의 일은 오직 誠과 不誠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중략) 대왕의 영무한 자질로서 춘추의 의리를 잡아 인의의 병사들을 일으켜 패연히 북쪽을 정벌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의 충의로운 선비들이 누가 鼓動하여 그림자처럼 따르지 않겠습니까?”하였다. 왕이 동의하며 가납하였다. 하지만 얼마 안되어 왕이 승하하였다. 상생은 우울함이 병이 되어 영력 을유년 황조인촌에서 서거하니 향년 59세였다. 39)

39) 楊庠生, 諱福吉, 字祥甫, 其先蜀人, 後徙通州. 庠生幼孤貧, 然卓犖好奇節. 崇禎初, 游學京師, 與韓知縣承宣友善. 是時知縣守歷城, 庠生遂客焉. 戊寅秋, 清虜入冠山東州縣, 望風奔潰, 知縣謂庠生曰: “虜騎將至, 計將安出?” 庠生曰: “兵不素教, 又值饑荒, 臨亂效死, 其誰聽之? 我則惟有一死而已.” 頃之賊兵迫城, 庠生知縣, 立門招民兵, 皆竄匿, 無一應者. 庠生歎曰: “人心至此.” 遂帥所

①부분은 양복길이 중국에서 활동했던 내용이며, ②부분은 봉림대군을 만나 조선에 들어온 이후 북벌에 대해 논의한 상황에 대한 묘사이다. 성해응 또한 「八姓傳」에서 이와 같은 사실을 언급했지만, 그 내용의 양과 질적인 면에서 왕덕구의 기록은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또한 당시의 상황을 대화체의 방식을 사용하여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이는 것은 황공에 대한 기록이다. 왕덕구는 황공이 임인관 등이 제주도로 표류했을 때에 특별히 파견되어 활동한 사실을 언급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미전신록」에 실려 있는 내용을 약간의 산삭을 거쳐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임인관과 함께 표류해 온 사람들의 성명과 나이를 모두 기록해 두었다. 그 결과 『皇朝遺民錄』 전체 분량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황공조가 차지하게 되었다. 즉, 九義士와 관련된 문헌은 최대한 참고하여 기록하고자 한 왕덕구의 의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皇朝遺民錄』은 이후 여러 기록들의 근거 자료로 인용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한 가지 예가 1830년 편찬된 오경문의 『小華外史』이다. 소화외사는 尊周攘夷의 측면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를 小中華와 中華라는 보편주의적 문명관으로 설명한 역사서이다. 오경문은 그 가운데 속편의 「征倭後仍居東國諸人」, 「避地東來諸人」, 「東來皇朝女人」 등을 저술할 때에 상당의 부분을 『皇朝遺民錄』에서 발

---

部，將吏爲固守計，不一日城陷，知縣死之，庠生亦被創氣絕。翌日復甦，賊知庠生之生，又掙使之跪，庠生厲聲曰：“死則死矣，此膝不可跪。”賊怒執送瀋陽。時宣文王，以大君在瀋陽，見以求置管下，與馮庠生諸公，從出東國。王館於宮門之外，時時召接。王嘗歎曰：“寡人北征之志，何日忘之。其如兵少力弱，何願聞公等之計，”庠生流涕對曰：“臣聞國君人神之主也。心者萬事之本也，天下事惟在於誠與不誠也。（중략）以大王英武之資，秉春秋之義，興仁義之師，沛然北征，孰能禦之？天下忠義之士，孰不撼動，而景從乎？”王動容嘉納，未幾王薨，庠生憂鬱成疾，以永曆乙卯卒于皇朝人村，年五十九。『皇朝遺民錄』

채하여 기록하였다. 그리고 인용한 부분은 小注로 기록해두었다. 또한 『皇朝遺民錄』은 九義士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었던 만큼 이후 九義士의 전기들에도 영향을 주었다.

### 3. 대명의리론을 통한 위정척사 활동의 일환: 「九義士傳」

조선 말, 왕덕구의 영향을 받아 저술된 대표적인 작품은 1875년 金平默이 저술한 「九義士傳」이다.<sup>40)</sup> 金平默은 조선의 마지막을 지탱한 儒林의 거장이었으며, 華西 李恒老의 문인이었다. 스승 이항로는 벽계를 거점으로 학문 활동을 하며 평생 주자의 학문과 대명의리론을 강조한 학자로 조선 말 위정척사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항로를 위시한 화서학파는 가평의 朝宗巖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이항로는 33세 때인 1824년 가평의 조종암<sup>41)</sup>을 유람하고 이념의 공간인 조종암 근처에 머물고자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조종암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이후 화서학파의 주요 거점이 된다.<sup>42)</sup>

40) 비슷한 시기 송시열의 후손인 宋秉璫도 이들에 대한 기록인 「皇朝遺民傳」을 남겼다. 송병선은 발문 형식의 글을 통해 선조 송시열이 九義士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且吾先子尤菴先生, 身任天下綱常, 雖山僧賤卒, 無不表章其義. 而尤眷眷于宗周, 於泉漳人來, 恨不得相見, 作詩以傷之, 而嘗無一言及于此, 誠可疑也.) 그리고 백이 숙제의 일도 夫子가 말하지 않았다면 후세에게 전해지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九義士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하였다.(然夷齊採薇之事, 夫子未嘗言之, 而後世不以此疑夷齊, 則諸公之事, 抑亦類此歟.) 이를 통해 송병선의 작품은 선조가 미처 하지 못한 일에 대한 후손의 책임감과 더불어 九義士에 대한 기록을 남겨 후세가 이들을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감의 발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41) 조종암은 1684년(숙종10)에 허격, 이제두 등이 명나라 의종의 어필인 ‘思無邪’, 효종이 대신에게 내려준 ‘日暮途遠 至通在心’, 선조의 어필인 ‘萬折必東 再造藩邦’와 선조의 후손인 낭선군의 글 『朝宗巖』을 바위에 새기고 제사를 지낸 곳이다.

42) 이종목, 『조선의 문화 공간』, 휴머니스트, 2006, pp.383-387.

그리고 1831년 『皇朝遺民錄』의 저자인 王德九와 형인 王德一이 가평으로 들어온다. 두 형제는 모두 九義士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대보단의 수직관에 제수되었으며, 掌苑, 造紙, 冰庫 등 여러 관청의 별제를 지내다가 提調와의 불화로 사직하고 조종암이 있는 가평으로 내려오게 된다.<sup>43)</sup> 그들은 조종암 근처에 大統行廟와 九義行祠를 세우고 매년 음력 1월 4일에는 명나라 태조에게, 1월 6일에는 명나라 九義士에게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王德九는 왕덕일이 1855년(철종5)에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이곳에서 머무르고 있었다.<sup>44)</sup>

한편, 金平默은 어려운 집안 사정으로 인해 한 곳에 거처를 정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에서 더부살이를 하다가 1859년(철종10)에 가평 葛懷로 이주하였다.<sup>45)</sup> 葛懷는 王德九가 머무르고 있던 朝宗巖과 근거리였는데, 실제 金平默은 王德九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九義士 이후 명나라 유민들의 각박한 현실에 대해 위로를 건네며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확인된다.<sup>46)</sup>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보아 조종암에서 王德九를 만난 것은 후에 金平默이 「九義士傳」을 짓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뿐만 아니라 김평묵의 스승 중 한명이었던 洪直弼은 김기보의 주선에 의해 성해응의 「皇明遺民傳」의 편찬에 참여한 것으로 예상되며 「讀皇明遺民傳後」를 남겼다는 점<sup>47)</sup>에서 화서학파가 명나라 유민들에 대

43) 金平默, 『重菴集』 권51, 「滄海王先生行狀」, “蔭補爲大報壇守直官, 奉行職事惟謹, 足不涉權貴之門, 歷掌苑、造紙、冰庫諸署別提. 條具痼弊, 請提調, 冀其變通, 調不聽, 先生卽去官而退.”

44) 金平默, 『重菴集』 卷51, 「滄海王先生行狀」, “甲寅, 磐川卒, 先生恐其廢墜, 自漢師來守是齋, 大小家政, 悉付其子景說, 足跡不復出山門.”

45) 한국고전번역원, 『重菴集』 해제, 한국고전종합DB.

46) 金平默, 『重菴集』 권51, 「滄海王先生行狀」, “平默寓居同郡之葛懷山, 日見朝宗之澗, 瀉出山外. 又讀宋先生辭紹裘笥子, 愴然起感. 遂孤往而至其齋, 先生偉顏皓髮, 明窓靜几, 蕭灑出塵, 望之若上界人. 左右書史, 皆朱宋以下尊王攘夷枕戈嘗膽之言也. 初九公之至國也, 宣文王, 以天朝士夫, 貴之也至, 以忠義貫日, 賢之也誠, 以將共伸大義, 望之也深. (중략) 流俗所輕, 九公之後, 微不能振矣. 進於此者, 尙復何望, 話次略及於此而弔慰之.”

해 평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김평묵에게까지 이어졌으리라 예상된다.

김평묵이 직접 밝힌 저술의 계기와 목적은 다음과 같다.

내가 속으로 아홉 사람의 이름이 거의 사라지고 자손들이 결국 빈곤하게 될  
을 마음 속 깊이 슬퍼하였는데, 高興 柳重教가 마침 『朝宗巖誌』를 편집한 것을  
계기로 내가 아홉 사람의 世系를 살펴 전을 지어 책을 만든다. 혹 이 글이 주상  
의 淸閒의 자리에 올려 진다면 아홉 사람은 크나큰 보답의 은혜를 입을 수 있  
을 것이고, 그 후예와 본국의 여러 공들의 후손들이 함께 그 집안을 일으킬 수  
있다면 이 또한 양을 세우고 음을 억제하는 한 가지 일이 될 것이다.<sup>48)</sup>

1865년(고종2) 조정에서는 만동묘가 유생들의 집합장소가 되어 폐단  
이 심해지자, 명나라 황제에 대한 제사를 大報壇으로 일원화 하고 만동  
묘는 철폐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조종암에서 지내던 제향도  
금지되었다. 하지만 1871년 金平默과 또 다른 제자인 柳重教<sup>49)</sup>는 스승  
이항로가 머물고자 했던 곳에 정자를 세우고자 계획을 수립하고 ‘見心  
亭’이라는 이름을 지어놓는 등 조종암과 화서학과의 연결고리는 끊임없  
이 이어졌다.

그 후 1873년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이 親政을 펼치게 되  
면서 유생들의 지지가 필요해지자 1874년 왕명으로 만동묘를 부활시켰  
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조종암의 황단에도 다시 제향을 올릴 수 있게  
되자 유중교는 제자 김영록으로 하여금 『朝宗巖誌』를 편찬하게 한다.

47) 손혜리, 앞의 논문, pp.352-354.

48) 金平默, 『重菴集』 권52, 「九義士傳」, “余竊悲九人之名, 幾於湮沒, 而子孫遂爲  
淸門也. 高興柳重教, 方輯朝宗巖誌, 余因考論九人之世, 作傳而列之編. 倘使  
此編, 得備主上淸閒之燕, 九人蒙崇報之典, 而其苗裔與本國諸公之後, 得同其  
家數, 則亦扶陽抑陰之一事也.”

49) 柳重教는 金平默과 함께 이항로의 제자이다. 金平默은 24세때인 1842년 이  
항로의 제자가 되었고, 유중교는 5살 때인 1837년 이항로의 문하에 들어갔  
다. 유중교는 14세 때 사형이기도 한 金平默에게 배우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종암지』의 편찬 과정에서도 王德九의 조카인 왕숙열과 교류를 이어나가며 『조종암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sup>50)</sup> 金平默은 바로 이 『조종암지』가 편찬된 것을 계기로 1875년(고종 12) 1월 「九義士傳」을 저술한 것이다.

金平默이 「九義士傳」을 저술한 일차적 목적은 거의 사라지다시피한 九義士에 대한 기록의 필요성을 느껴서이다. 황명유민으로 자처했던 金平默은 명나라 유민들의 역사가 제대로 전해지지 못하고, 이들이 조선에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항상 안타까워하였다. 이에 大統行廟의 제사에 토지와 노비를 지급할 것과 九義士에게 은전을 베풀고 사우를 건설해 사액할 것, 명나라 유민들을 조선의 사대부와 동등하게 대우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sup>51)</sup> 따라서 「九義士傳」은 九義士의 행적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절의의 상징으로 이들을 드높일 필요성이 있었으며, 더불어 九義士의 후손들이 자리를 잡는데 보탬이 되어야 했다. 그리하여 김평묵은 「九義士傳」을 저술하면서 최대한 많은 자료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전체적인 내용은 王德九의 『皇朝遺民錄』과 九義士 집안의 기록을 바탕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尊周彙編』에서 내용을 보충하는 방식을 취했다.<sup>52)</sup>

또한 기존 九義士 관련 기록에서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을 서술하였는데, 조선 조정에서 이루어진 북벌에 대한 논의 과정이 그것이다.

① 당시 김자점은 遠竄의 죄를 저지르고서 나라에 대한 원망에 날로 깊어져 청에 사람을 보내 나라의 사정을 누설하였다. 그러자 청나라가 매우 급하게 다그쳤으나 왕이 기미를 알고 잘 대처하여 나라가 무사하게 되었다. 여러 공들은 연이어 물러났고 얼마 후 김자점은 처형당하였다. 무술년에 왕이 다시 송 선생을 등용하여 이조판서에 올리고 모든 국사를 그의 말대로 따랐다.(중략) 선생은

50) 柳重教, 『省齋集』 권9, 「往復雜稿」.

51) 우경섭, 2012, p.359.

52) 金平默, 『重菴集』 권52, 「九義士傳 王鳳岡條」.

이미 조정에 들어와 있으면서 문정 송준길 선생 등과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수개월 안에 다스림의 큰 근본이 세워지게 되었다.<sup>53)</sup>

② 이에 송시열 선생을 등용하여 대사를 맡겼다.(중략) 왕이 말하기를, “좋다.” 하고 송 선생을 이조판서로 들이고 10년의 계책을 정하였다.<sup>54)</sup>

金平默이 「九義士傳」을 저술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기술한 이유는 당시 조선의 정세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金平默은 조선 말 외세의 개항 요구 속에서 위정척사를 주장한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1866년에 발생한 병인양요를 시작으로 1871년 신미양요가 발생하면서 외세에 의한 문호개방 요구가 본격화 되자, 조선에서는 척화비를 세우는 등의 정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거부하였다. 1873년 대원군이 실각하자 이 같은 정책은 힘을 잃었고, 외세의 문호 개방 요구는 더욱 강력해졌다. 「九義士傳」은 바로 이 시기에 지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金平默은 「九義士傳」 안에 오랑캐 세력을 물리치고자 노력했던 조선의 노력을 담고자 했을 것이다. 그리고 九義士를 병자호란 당시 척화를 주장했던 학사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모습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sup>55)</sup>

또한 金平默이 「九義士傳」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이유도 있다.

지금 『尊周彙編』 가운데 「九義士傳」을 살펴보니, 九公이 뜻을 모아 적과 싸운 충정과 사로잡혔음에도 굽히지 않았던 절개와 우리 효묘를 좇아 은밀히 대

53) 時金自點有罪遠竄，怨國日深。乃遣人於虜，潛泄國情，虜喝甚急，王應機善處，得以無事，而諸公則相率而退矣。既而自點伏誅。戊戌，王復延宋先生，陞吏曹判書，舉國而聽之。(중략) 先生既入，宋文正浚吉等同心戮力，數月之內，爲治之大本已立。「九義士傳 王美承條」

54) 於是，用宋先生時烈，託以大事。(중략) 王曰：“善” 宋先生自入吏曹，定爲十年之計。「九義士傳 楊福吉條」

55) 金平默, 『重菴集』 권52, 「九義士傳」, “九人之義, 其耀日月而軒天地, 亦與我東之斥和學士脩攘諸公同歸.”

사를 논의한 사실이 모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王鳳岡이 고기잡이를 한 일과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王公은 명나라의 사대부로서 외국에 투신하여 장차 일을 하려 했으나 임금이 중도에 승하하여 일이 크게 어긋나버렸습니다.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텐데, 조정에서 또 눈앞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들을 혼련도감에 넣어서 아병의 급료로 먹고 살게 하였으니 인정이 어찌 피차가 다르단 말입니까. 복수를 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희망도 없게 되었습니다. 어제의 天朝의 당당한 명문가가 오늘날 下國의 천한 牙兵이 되었으니, 그 마음이 화평하고자 하여도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牙兵의 급료로 먹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한강으로 나아가 물고기를 잡아 스스로 먹고 살았던 것 뿐입니다. 그 마음이 진실로 비통하니 천년 후에 志人과 仁人들이 마땅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傳에서는 그 사실을 모두 지워버리고 기록하기를, “봉강의 무리가 물고기 잡이를 잘하여 항상 그물로 물고기를 잡아 바쳤다. 상이 나중에 혼련도감에 소속시키고 이름 하기를 漢人牙兵이라 했다”고 운운하고 있습니다. 王公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았다는 이유로 그 무리들에게까지 적용하고, 그들이 그물로 물고기를 잡은 이유가 왕에게 진상할 재물이 필요해서라고 합니다. 그 비루하고 더러움이 과연 여기에 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인데, 어찌 취하여 존주록의 전에 기록하였던 말입니까. 이는 그 말에 진퇴할 근거가 없으니 마음을 씌에 정성스럽지 못하였음을 볼 수 있을 뿐입니다.<sup>56)</sup>

이 편지는 金平默이 『尊周彙編』 가운데 ‘諸臣事實’ 부분을 살핀 후 1875년(고종12) 4월에 任憲晦에게 보낸 편지이다. 『尊周彙編』은 「磊磊落

56) 金平默, 『重菴集』 권7, 「與任明老」, “今以尊周彙編中, 九義士傳考之, 九公募義擊賊之忠, 被執不屈之節, 從我孝廟, 密謀大事之實, 都不采入. 至如王鳳岡漁釣事, 則王公以天朝士夫, 投身外國, 將以有爲也. 而主國之君, 中道薨逝, 事乃大謬. 只此一事, 方且如不欲生, 而朝議又以眼前所愛之子若孫, 付之訓練都監, 而使食牙兵之料, 人情豈有彼此之異乎! 不但復讎還國, 無復可望. 昨日天朝堂堂名宦之家, 今日爲下國牙兵之賤, 其心雖欲和平, 得乎? 此所以恥食其料, 而出於漢江, 漁釣以自給耳, 其心良可悲也. 千古之下, 志士仁人所當淚落. 今乃於傳中, 全削其事實而書之曰: ‘鳳岡之徒, 有善漁者, 網魚獻之, 上後屬訓練都監, 名曰, ‘漢人牙兵云云.’ 則是以王公之網魚, 移之於其徒, 而以其網魚, 爲要上之資也, 其鄙陋汗賤而無謂果至於此, 則何所取而錄之於尊周之傳耶? 此其爲說, 進退無據, 適所以見用心之不誠耳.”

落書」와 「皇明遺民傳」에 실려 있는 내용과 일치하기 때문에 金平默이 위에서 이야기 하는 내용은 세 가지 책 모두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선 金平默은 『尊周彙編』이 九義士의 행적을 담아내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였다. 그리고 대표적인 예로 이들이 혼련도감에 소속된 사실만을 실었을 뿐 전후 사정을 모두 생략해 버린 점을 들었다. 즉, 왕봉강이 물고기를 잡은 사실을 그의 무리가 잡은 것으로 바꾸어 버리고, 물고기를 잡은 이유가 임금에게 바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함으로서 사실을 곡해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金平默은 「九義士傳」을 지을 때 『尊周彙編』 등의 오류를 바로 잡고 사실의 전후 사정을 모두 담아내기 위해 노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金平默의 「九義士傳」은 『皇朝遺民錄』보다 풍부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되었다.

「九義士傳」의 또 다른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年號’의 사용이다. 명나라 멸망 이후 조선 문인들은 청나라의 연호 대신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崇禎의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는 조선이 중화문명의 계승자임을 확인하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19세기 화서학과 문인들은 철저한 중화주의적 학풍을 내세우면서 崇禎 대신 남명의 마지막 황제인 永曆의 연호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金平默의 「九義士傳」에서도 이 사실이 확인된다. 金平默은 평소 永曆 연호의 사용이 의리상 타당하며, 永曆 연호를 통해 중화의 정통을 분명히 밝힐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金平默은 「구의사전」에서 崇禎 연호 뿐만 아니라 永曆 연호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생각을 구체화하였다. 이 같은 金平默의 생각은 왕덕구를 비롯한 명나라 후손들과 그 궤를 같이 한다. 실제로 永曆 연호의 사용을 처음 주장한 것도 왕덕구를 비롯한 명나라 출신 인물들이었다. 이들의 永曆 연호 사용 주장은 혈연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중화의 계보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金平默의 永曆 연호 사용은 단절된 중화의 계승자로서 스스로 정체성을 설정하고자 하는 조선 문인의 의지의 표명이었다.<sup>57)</sup>

## IV. 결론

영·정조대 존주론에 입각하여 명나라 유민들을 대우하는 정책들이 본격 시행 되면서 명나라 유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18세기 후반부터 조선 지식인들은 명나라 유민들의 행적을 ‘遺民傳’의 형식으로 기록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로 나온 것이 「磊磊落落書」나 「皇明遺民傳」, 「八姓傳」, 『尊周彙編』이었다. 이들 책들은 명나라의 인물들을 조선인의 손으로 기록함으로써 명나라를 계승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한 의도가 엿보이는 작품이다. 여기에 효종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온 九義士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비록 九義士의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기록 덕분에 九義士의 존재가 다시금 세상에 등장했으며, 이후 다양한 기록들이 나오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미가 있다.

王以文의 후손인 왕덕구가 지은 『皇朝遺民錄』의 경우에는 선조들의 행적을 가급적 상세하게 기록하고자 하였다. 그는 九義士가 조선에 들어온 이유가 反淸復明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음을 명확히 밝혔으며, 이 九義士의 존재가 조선이 중화문명을 계승했다는 증거임을 강조하고자 했다.

왕덕구와 긴밀한 관계를 가진 김평묵은 위정척사의 입장에서 「九義士傳」을 저술하였다. 九義士의 행적을 상세히 기록한 것을 뛰어 넘어 조선 조정에서 북벌이 논의되는 과정까지도 함께 언급하였다. 그리고 九義士들을 조선의 삼학사들과 동일시 하면서 九義士의 절의를 본받음과 동시에 후손들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 小中華의 면모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랐다. 더 나아가 이들의 모습을 통해 당시 혼란스럽던 조선 사회에 경

57) 우경섭,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南明王朝 인식」, 『한국문화』 61,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pp.146-154.

종을 울리고자 하였다.

「磊磊落落書」를 기점으로 시작된 유민들에 대한 기록들은 내용 부분에서 많은 유사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각의 기록들은 나름의 의도를 가지고 집필되었다. 조선이 중화문명의 계승자임을 강조하거나 선조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한 후손의 책임감, 그리고 대명의리를 강화하고 구의사의 모습을 당대의 교훈으로 삼고자 했던 의도들이 기록들 사이에 존재한다. 따라서 이 작품들의 비교 고찰을 통해 명 유민에 대한 기록이 행해지는 추이와 18~19세기 지식인들의 사상적 배경과 작가의식 등을 살필 수 있었다. 또한 명나라 유민들에 대한 관심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탄생하면서 조선 후기 인물 기록의 소재가 다양화되고 풍성해 지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參考 文獻>

『光海君日記』

『仁祖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肅宗實錄』

『正祖實錄』

金平默, 『重菴集』(한국문집총간 319~320집)

成大中, 『青城雜記』(한국문집총간 248집)

成海應, 『研經齋全集』(한국문집총간 273~279집)

宋秉璿, 『淵齋集』(한국문집총간 329~330집)

王德九, 『皇朝遺民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王德九, 『滄海集』(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본)

柳重教, 『省齋集』(한국문집총간 323~324)

尹 鏞, 『白湖全書』(한국문집총간 123)

李德懋, 『靑莊館全書』(한국문집총간 257~259집)

한국고전번역원, 『重菴集』 해제, 한국고전종합DB

노혜경, 「英祖代 皇朝人에 대한 인식」, 『동양고전연구』 37집, 동양고전학회, 2009.

손혜리, 「18세기 후반~19세기 전반 조선 지식인들의 明 遺民에 대한 기록과 편찬의식」, 『韓國實學研究』 28, 한국실학학회, 2014.

우경섭, 「조선후기 귀화 漢人과 황조유민의식」, 『한국학연구』 27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012.

\_\_\_\_\_, 「조선후기 지식인들의 南明王朝 인식」, 『한국문화』 61집,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3.

\_\_\_\_\_, 「조선후기 大明遺民의 罔僕之義」, 『한국학연구』 36집, 인하대 한국학연

구소, 2015.

이종묵, 『조선의 문화 공간』, 휴머니스트, 2006.

정옥자, 「正祖代 對明義理論의 整理作業-〈尊周彙編〉을 中心으로」, 『한국학보』  
69집, 일지사, 1992.

\_\_\_\_\_, 『조선후기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최승현, 「한국의 明代遺民 연구」, 『중국인문과학』 47집, 중국인문학회, 2011.

## Abstract

*Aspects of record on displaced people in the Ming dynasty in  
the late Joseon Dynasty - Focused on the works of  
'Guuisa(九義士)' / Sa Kyung-hwa\**

After Byeongja Horan(丙子胡亂) ended, Bonglimdaegun(鳳林大君), who was taken hostage to the Qing Dynasty, was staying in Shenyang(瀋陽). And he meets with the nine Ming Dynasty scholars who were brought here as prisoners of the Qing Dynasty. All of them had a mind of "BanCheongBogMyeong(反清復明)" and then came to Korea with Bonglimdaegun(鳳林大君) to realize their goal. These are called "Guuisa(九義士)".

The Guuisa(九義士) were prepared for the Bugbeol(北伐) in earnest when Bonglimdaegun(鳳林大君) came to the throne. However, Bugbeol fails because Hyojong(孝宗) dies in the throne after 10 years. And the presence of Guuisa also becomes blurred.

The presence of the Guuisa was again revealed in conjunction with the strengthening of the Jonjulon(尊周論), and various records of these began to emerge during the Jeongjo(正祖) period. At first, "NoeLoeNagLagSeo(『磊磊落落書』)" compiled by Lee Duk-moo(李德懋); "HwangMyeongYuMinJeon(『皇明遺民傳』)" and "PalSungJeon(『八姓傳』)" compiled by Sung Hae-eung(成海應); "Jonjuhwiyeon(『尊周彙編』)" compiled in the country showed that Chosun inherited the Ming by recording the loyal servants and saints of Ming Dynasty. Next, Wang deog-gu(王德九), a descendant of Guuisa, wrote <HwangJoYuMinLog(『皇朝遺民錄』)>. He recorded the activities of his ancestors in detail and revealed that the purpose of Guuisa's entry into Joseon was "BanCheongBogMyeong". And that the existence of Guuisa itself shows that Joseon inherited the Ming Dynasty. Finally, Kim Pyung-mook(金平默) described <GuUiSaJeon(九義士傳)> from the standpoint of Wijjeongcheogsa(衛正斥邪). He strengthened the Daemyeonguilon(對明義理論) and

\* Ph.D.Candidate, Sungshin University / sanomi@daum.net

hoped that Guuisa's life would become a lesson in the chaotic Joseon society at the time.

Through these records, we were able to look at the ideological backgrounds of 18th - 19th century intellectuals of Joseon and various artists' rituals. In addition, the fact that interest in Ming Dynasty people was born as a literary work contributed to diversification and enrichment of the character records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Guuisa(九義士), BanCheongBogMyeong(反淸復明), Wang deog-gu(王德九), HwangJoYuMinLog(『皇朝遺民錄』), Kim Pyung-mook(金平默), GuUiSaJeon(『九義士傳』)

투고일 : 5월 21일, 심사완료일 : 6월 16일, 게재확정일 : 6월 16일